

Qualitative Analysis of Outcomes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nd Education Needs of North Korean Refugees^{*}

Hyeonjin Song^{**} (Chung-Ang University)

Sungmi Ji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increasing needs of lifelong learn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requires the study of understanding their learning experiences as lifelong learner based on their own percep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at is perceived as outcomes and educational needs of North Korean refugees after their participations in lifelong learning programs. In-depth interviews with 7 North Korean refugees were conducted to collect narratives of their experiences and qualitative analysis followed. From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y perceive their outcome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s; identity building as North Korean refugees, establishing good relationships in Korea, and exploration of new roles from recovery of self-dignity. Also they perceived educational needs of; quick adaptation and employment in Korea, educations for practical use, and learning based on relationshi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reflect their educational need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lifelong learning, educational needs

* This article is written using data from Song Hyeonjin's master thesis(2015), "A Study on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motive and meaning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156-756, Seoul, Korea
/ E-mail: hyeonjinedu@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156-756, Seoul, Korea / E-mail: sungmi@cau.ac.kr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성과와 교육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송 현 진** (중앙대학교)

진 성 미*** (중앙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요구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자로서 그들이 가진 특성과 학습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평생학습 참여 후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게 된 교육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평생학습 후 그들이 인식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변화에는 북한에서 이주해 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존감회복을 통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평생학습 참여 후 다양한 교육요구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사회 정착과 취업을 위한 교육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필요로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그들의 인식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 중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평생학습, 교육 요구

* 이 연구는 '송현진(2015).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의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이용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E-mail: hyeonjinedu@hanmail.net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부교수, E-mail: sungmi@cau.ac.kr

논문투고 2015. 10. 10 / 심사일자 2015. 10. 20 / 심사완료 2015. 11. 19

I. 서 론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0월말 28,497명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15). 그들의 탈북 동기로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46.8%로 가장 많았으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2000년 이후 탈북 동기는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증가 추세에 있고, 생존과 삶의 질 추구라는 동기를 가지고 입국하고 있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동운, 김용태,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성공률은 15% 미만으로 나타나며(하영수, 2010),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 또는 제3국으로 떠나는 탈남 현상이 평균적으로 10% 정도이다(최정진, 2012). 이러한 낮은 사회정착 성공률은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에서 기인한다(하영수, 201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방향을 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전환하고,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박성정, 오은진, 2012),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과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취업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평생교육진흥원, 2010).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경제활동 참여와 보다 빨리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다양한 교육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은 대표적으로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진행되며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상옥, 2014).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김영하, 2008; 노경란, 전연숙, 2009; 박상옥, 최늘샘, 2011; 이지경, 2012; 정정애 외, 2013). 초기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12주간의 짧은 사회적응교육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냉혹한 무한경쟁에서 적응할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김영하, 2008). 또한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학습자에게 의미 없는 정보의 일방적 전달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노경란, 전연숙, 2009). 따라서 하나원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박상옥, 최늘샘, 2011). 지역적응과 자립자활을 다루는 지역하나센터 교육은 비교적 호응은 좋으나 초기집중교육에 한해 운영되는 한계가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평생교육진흥원, 2010).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중점적인 지원 방안으로 직업훈련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방향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다(노경란, 2008; 박상옥, 최늘샘, 2011; 박성정, 오은진, 2012; 이윤진, 유기웅, 2014; 정진화, 손상희, 이주관,

2013; 평생교육진흥원, 201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훈련과 취업에 관한 정보와 기회가 효율적으로 전달·지원되지 못하며, 자립을 위해서는 교육·훈련·노동의 경험과 전략이 통합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성정, 오은진, 2012).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 요구에 근거한 직업교육정책에 북한이탈주민의 의사결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운진, 유기웅, 2014). 그리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직업취득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심리적 안정기제가 프로그램 내에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노경란, 2008).

북한이탈주민 한국 사회 적응 방법을 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김도태, 2012; 신두철, 2011; 신미식, 2011; 유병선, 2012)에서는 시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시민교육 방향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신두철, 2011). 또한 시민교육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활성화, 한국 내의 시민협력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김도태, 2011), 평생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신미식,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현황과 실태 파악, 문제점 발견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김도태, 2011; 신두철, 2011; 신미식, 2011).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경험한 학습 성과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경험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면의 연구는 많았지만 학습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교육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특성과 그들의 학습경험을 잘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여러 교육이 제공되지만 실제 그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들이 스스로가 학습의 성과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학습을 필요로 하며 학습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한 학습 성과와 교육 참여 후 인식하게 된 그들의 교육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과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삶의 변화와 성과를 얻었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평생학습에 참여한 후 인식하게 된 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요구 분석은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할 뿐 아니라, 평생학습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색을 이해하고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성과 교육요구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관심사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학습 참여와 학습 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인식한 학습 성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최운실, 2005). 학습 성과에 대한 학습자 중심 관점은 학습주체 및 학습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학습자가 학습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학습자의 생활맥락에서 평생학습경험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질적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성과를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개별성을 반영한 학습이 되도록 해준다(정민승, 최운실, 2007).

또한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습 성과 평가 시에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자의 특수성, 학습 성과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여러 특수성들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Schuller와 Brassett-Grundy(2002)는 영국에서 평생교육의 성과(benefits)를 연구하면서 관찰과 심층면담 등 질적 방법을 이용하여 평생학습의 성과를 개인 정체성, 인적자본 형성,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세 축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참여자의 주관적 참여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심층면담을 통해 평생학습자의 학습생애사 분석으로 평생학습 성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최운실, 이지혜, 정민승, 2005)가 대규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정민승과 최운실(2007)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학습 성과는 지식이며, 지식은 네트워크 및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내적 자신감과 외적 학습공동체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이는 삶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삶의 변화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사회봉사 및 참여로 구체화되어 또 다른 교육요구로 이어진다. 이처럼 평생학습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는 상호 연관하여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학습 성과로 삶의 질, 학습력 등 개인적 성과를 가장 높게 인식하며, HRD 성과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인간관계 향상, 실생활에서 학습 활용은 높게 인식하고 있다(최운실, 2005). 또한 개인 차원의 평생학습 참여 성과는 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도 관련이 된다. 김영미와 한상훈(2012)은 참여 동기, 학습참여도, 자아개념이 평생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습자 요구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요구란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로 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진화, 2001). 교육요구분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신수진, 조대연, 2014). 그러므로 학습자 요구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성인학습자의 참

여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다(기영화, 2001). 학습자의 교육요구를 무시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은 비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며(권대봉, 1999), 요구분석 과정은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미래 상태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집단을 고려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파악된 요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조대연, 2006). 신수진과 조대연(2014)은 총 34편의 교육 요구 논문을 분석한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절반 이상 논문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미래 상태의 차이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40% 이상은 단순 선호도, 중요도, 필요도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요구분석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요구나 요구분석에 대한 사전 검토는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이해 요구를 그들이 실제 학습참여를 통해 경험하고 인식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교육 요구분석의 사전 자료로서 학습자 중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2항)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경우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원 수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낮고,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차이로 인한 학습자 간 요구 차이를 교육이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교육생의 80%이상이 하나원 프로그램에 불만을 제기한다(이지경, 2012). 하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교육 영향력이 학습자에게 상당히 제한적이며, 하나원에서 교육이 지식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조정아, 2010).

북한이탈주민이 제대로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루어지는 사회적응교육은 정착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짧아 사회적응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신미식, 2011). 또한 이들에게 입국초기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우수문화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국내 입국 후 첫 번째 교육인 하나원 과정이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은 연령별·직업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사회 사각지대를 소개하여 코리안 드림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하나원 교육이 관·민·기업 등이 협력하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조인목, 기영화, 2015).

북한이탈주민 학습 경험과 사례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교육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현아, 2010; 노희숙, 2012; 이덕정, 2011; 조인목, 기영화, 2015; 조정아, 2010). 남한과 북한에서 생애경험의 이질성으로 인해 이들이 정착 초기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학습은 의미관점 전환을 동반하는 관점전환학습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학습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관찰과 모방학습, 비판적 해석, 성찰을 주요한 학습기제로 활용하고 있다(조정아, 2010). 이들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학습기회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학습경험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주체가 되어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학습 경험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에서 나타난 전환학습 연구(노희숙, 2012)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로서 성인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맥락을 공통 경험시기의 정책적 학습 참여와 자유 경험 시기의 선택적 학습 참여로 구분하였다. 정책적 학습 참여는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학습으로 작용하며, 선택적 학습 참여가 사회 적응에 있어 더 중요한 학습경험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평생학습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이덕정(2011)은 북한이탈 중년 여성은 학습경험이 이전 시기 자신이 체험한 삶을 해석하고 정체성을 개정해나가는 기초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학습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서 삶을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학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한국 여자로 재사회화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 중년여성들이 '나이든 독특한 새내기 학습자'로서 한국 사회 성인학습자와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멘토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평생학습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이버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김현아(2010)는 탈북 청소년과는 달리 성인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형태를 띠며,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습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고, 사전학습으로서 한국생활 경험이 중요하며, 학습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업에 대한 열의임을 지적하였다. 한국생활 경험을 통해 배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지식습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학습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배움에 대한 도전, 부단한 학습노력은 북한이탈주민이 학습을 하는데 촉진요소로 작용하였고, 학습 성공 경험이나 학업성취로 인한 기쁨이 학습을 지속하는데 크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제로 북한이탈주민 동료모임이나 오프모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연구(조인목, 기영화, 2015)에서 북한이탈주민은 12주간의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진행된 시민교육 경험을 통해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경쟁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고심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으나, 제한된 정보와 남북한 학습개념의 차이 등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높아 좌절감과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자유로운 실습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 중 한 가지는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인식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사례로 하나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요구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교육 요구 분석 결과, 심리적 안정 기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 주제에 따라 연령별 특화가 필요하고, 쉽고 재미있는 교육내용 전달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노경란, 2008). 또한 박상옥, 최늘샘(2011)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그들이 국내 입국 후 처음 경험한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그들이 정착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학습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는지,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변화내용, 삶을 변화시킨 학습 기제와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학습의 주체로서 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교육을 요구하는지 그들의 인식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학습 성과와 교육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학습경험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참여한 평생학습 경험의 성과와 교육 요구 확인을 위하여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이전 경험과 현재의 교육 참여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진술한 경험을 통해 그들이 구성한 교육 참여 성과와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삶에 대한 의미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erriam, 2009).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나서 그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변화와 성과, 교육 요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연구 문제에 대한 범주

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성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는데 연구자가 수년 간 활동해 온 A통일선교학교와 B단체에서 운영하는 남북여성 합창모임의 도움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참여자를 선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조사는 불가능하여 유의적 표집 방법인 눈덩이표집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한국 사회 입국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현재 직업을 갖고 있거나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1과 2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A통일선교학교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 하나원 원장 출신 지인에게 소개 받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3과 4는 연구 참여자 1로부터 소개받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5는 통일선교학교에 참석 한 수강생 중 얼굴을 익혀 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심층 면담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6은 통일기도회에 참석해서 만난 북한이탈주민과 친밀감을 쌓아 가던 중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7은 남북여성 합창모임에 참석하면서 단체 활동가에게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추천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별로 1회 씩 4-6시간씩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 전에 연구자와 연구자의 소속,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참여자를 소개받았으나 남성 참여자와의 실제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여자 7명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 선정 시 접근이 가능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설명할 참여자를 선정하려고 하였고, 이에 여성들로 모두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여성학습자의 특성을 별도로 보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학습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연구 질문과 대화 등에 특정하게 여성과 관련된 경험을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7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평생학습자로 일반화하는 데는 연구 방법론상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여자 연령별(50대 3명, 40대 3명, 30대 1명)로는 40대와 5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입국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명, 2006년 2명, 2007년 2명, 2012년 1명, 2013년 1명이다. 북한 거주지별로 보면 함경북도 6명, 평양 1명이며,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명, 직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2명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모두는 현재 다양하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입국 후 초기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였고, 이

후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또한 사이버대학교나 대학원 등의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었고 동시에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나 사이버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기개발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일터와 일상에서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명은 가명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

성명	나이	성별	북한 / 남한		탈북	제3국 체류	입국	참여 프로그램
			거주지	학력				
김다정	45	여	함경북도 서울	고등중학교 대학원 재	2005	1년	2006	컴퓨터, 사회복지학, 풍선아트, 종이접기, 웃음치료사, 가족커트, 노래지도사, 레크레이션 강사, 북한선교, 마음치유교육, 통일강사교육
에스터	41	여	함경북도 경기도	고등중학교 대학교	1998	9년	2007	제과제빵교육, 중국어, 컴퓨터 자격증, 북한선교
김화	52	여	함경북도 충청남도	대학교	1998	15년	2013	컴퓨터자격증,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통일강사교육
박미정	45	여	함경북도 충청북도	대학교 대학교 재	2012	7개월	2012	산전교육, 영양교육, 사회복지학, 컴퓨터자격증, 웹디자인과정, SPSS과정
전연화	58	여	평양 서울	대학교 대학교	1998	6년	2004	심리상담사, 노인상담사, 직업상담사, 요양보호사, 통일강사교육, 행정사자격증
강희선	53	여	함경북도 서울	대학교 대학교 중퇴	2002	5년	2007	컴퓨터자격증, 통일강사교육, 방과후지도사, 미술치료사, 사회복지사, 발 마사지법
이희열	39	여	함경북도 경기도	전문대 중퇴 대학원 재	1997	9년	2006	중국어, 인쇄자격증, 컴퓨터, 통일교육, 미국 인권연수, 인문학강의, 시민교육

2.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반구조화 된 면담으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참여자 모두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만남을 4-6시간으로 길게 잡았으며 만나는 동안 차도 마시면서 편안하게 얘기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주제, 질문 내용을 보여 주며 연구동의서를 받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한국에서 참여한 평생교육 종류, 교육 참여 동기, 교육에서 무엇을 배웠고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가장 영향을 준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교육 참여 후 인식한 교육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북한 생활과 탈북 동기, 중국 등 제 3국에서의 생활 및 국내 입국 후 경험한 평생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집이나 근무처, 참여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녹음과 함께 기록노트에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으며 주제어를 정리해 나갔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떠오르는 주제어를 적어보고 연구자가 깨달은 것과 느낌을 적어 나가는 것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며 다음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준비해 나갔다. 자료범위는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녹취록과 면접 당시 참여자의 감정, 비언어적 메시지, 특징, 주요 단어 등의 직접관찰 및 메모한 현장 기록노트, 그리고 문헌자료를 보충적으로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 당시 받아 적은 내용위에 녹취한 자료를 3-4번씩 반복해 들으며 전사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메모 및 분석단위화, 코딩, 주제 분석, 범주화 등이 있다(Merriam, 1988).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 이후부터 글쓰기 이전까지의 과정으로, 자료를 요약하고, 코딩하고, 주제를 찾고, 덩어리로 묶는 작업이다(조용환, 2008). 질적 분석의 첫 작업을 코딩에 두며, 코딩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주제·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진은 요구, 변화, 성과, 어려움 같은 용어를 의미와 맥락에서 유의하여 코딩 한 후 지속적인 비교분석법으로 주제들을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묶고 그 주제와 관련된 전사 자료에 밑줄로 표시하고 그 옆에 개념을 적어 나가면서 주제 진술을 분리해 나갔다.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패턴을 찾아 종합화 하였고, 지속적인 비교분석법을 통하여 도출해 낸 112개 개념과 16개 하위범주, 4개의 범주들을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 따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 윤리 및 타당성과 신뢰성의 확보

질적 연구에서 연구 과정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필수이다(Patton, 2002). 특히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자는 유의해야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독특한 사례로 심층 면담을 사용하였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신분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연구진은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소속, 연락처,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면담과정에서 원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며, 녹음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녹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녹음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고 학문적 용도로만 활용할 것에 동의를 얻었다. 또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탈북과 이주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털어 놓아야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연구자와 참여자의 공동 작업임을 강조하였고, 참여자들도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담에 참여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의 확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와 검토,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및 삼각 검증 등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독특한 사례이므로 전사 자료를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 내용을 놓치지 않고 현상이 지닌 맥락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노트에 메모하는 것을 반복 정리하였다. 탈북민 단체와 탈북민교회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문제의식을 가졌던 제1연구자는 면담 내용 중 상황 배경 등에 관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활동가인 동료들로부터 확인받음으로써 명료화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정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재수정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한 내용을 메일을 보내 확인하게 하고 그 후 전화를 해서 참여자의 검토를 받았으며, 부족한 부분은 다시 받아서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연구 참여자 확인을 하였다. 셋째, 이 연구를 위해 연구 설계의 과정, 연구 문제 구체화 및 면담 질문 작성, 면담자료 수집 및 분석과 해석의 전 과정에서 평생교육 연구과 질적 연구의 오랜 경험을 가진 공동연구자와 제1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비교 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삼각검증의 일환으로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발견된 주제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료 해석과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IV. 연구결과

7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한 후 인식한 삶의 변화와 성과는 어떠하며, 그들이 원하는 교육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발견되었다.

1.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변화

가. 정체성 갖기: 북한에서 이주해 온 대한민국 사람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가족, 이웃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기도 했으며, 인신매매로 사랑하지 않는 남성들과의 혼인도 경험하였다. 중국공안에 잡히는 극한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했으며 북송 당해 견지도 못할 만큼 매질을 당하는 인권유린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런 고통을 경험한 그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입국은 ‘고마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왔는데 이 나라가 집을 주고... 난 가만히 생각해요. 세상에 탈북민을 이렇게 보살피는 나라가 있겠는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나라를 등지고 떠나온 세계적으로 말하면 난민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너무나 과분하게 해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김화)

하지만 입국의 기쁨도 잠시, 지난날의 고단했던 경험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심신은 지칠 때로 지쳐있었다. 불안과 공포, 불평과 불만으로 국정원과 하나원 등에서 서로 옥하고 싸움했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자각과 성찰을 통해 마음을 열고 낯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다.

하나원에 있을 때 자기 마음 알기 교육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나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를 알 수 있어요. 내 과거 북한에서 모습은 어땠고 탈북 해 와서 중국에서 내 모습은 어땠는지, 앞으로 한국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건지, 사회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학습이 좋은데 이 시간을 좀 많이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김화)

탈북민은 정말 강해요. 정말 일을 잘해요. 근데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북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길러주고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니까 마음이 변화해야 해요. (김다정)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안정적인 신분을 얻었다. 그들은 대부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한 하나원 교육 후 주민등록증을 받고 오랜 시간 중국 등 제3국에서 난민으로 생활했던 아픈 경험을 떠올리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 신분을 얻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중국에 있을 때 공안에 잡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한국으로 오는 방법을 알게 되어 혼자 9일 걸려 라오스에 갔고, 태국수용소에 3개월 있다 한국에 입국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전연화)

그러나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을 얻은 기쁨도 잠시 실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모두 북한 출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편견이 싫어서 더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별이었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냉대와 편견 그리고 무시와 차별은 그들을 더 외롭게 하고 소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북한 출신자에 대한 편견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직장동료들의 태도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 변화해야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마트에서 일하며 털고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사람 몫을 하며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시급 5200원을 계속 주어요. 내가 북한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거지요. (강희선)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업신여기고 탈북자들이 뭘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해주고...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 놓지도 못하고 선뜻 다가가지도 못하고 많이 외로웠지요. 지금 혈육 한 점 없이 혼자 와서 있잖아요. (전연화)

내가 무슨 의사를 밝히면 “네가 뭘 알아”라고 말하며 우선 인정해 주지 않는 직장동료들의 태도에 기분은 나쁘지만 더 노력해야지. 북한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다름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걸 알았어요. 원래 내가 탈북민인데 어찌겠어요. 부딪쳐야 해요. (에스더)

또한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북한이라는 철저한 통제 체제하에서 출신성분에 따라 사는 곳, 교육, 직업 등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국가의 지시에 의해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다고 한다. 직업을 선택하고 교육 받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었지만 차츰 결정권과 선택권의 자율을 경험하며 새로운 체제에 익숙해졌다.

북한에서 자기 전에 매일 생활총화 하던 버릇이 남아 있어서 매일 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잘 못했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꾸었지요. 그게 진짜 나한테 빼와 살이 되고, 지금까지 현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배웠기 때문에 올 수 있었고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전연화)

나의 정체성의 변화는 북에 있을 때는 '시키는 일만 한다'에서 다른 걸 할 수 없었고 노력해봤자 계란으로 바위 깨기였어요.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일을 하면서 나의 주장권, 의사 결정권이 생겼어요. 나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함을 알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들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예요. (에스터)

또한 북한에서와는 다르게 간섭과 통제가 없는 자유를 느끼며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않는다고 하였다. 이제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있으며 도전정신도 생기고, 북한에서보다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됨을 느낀다고 한다.

북에서 보다 여기서 더 행복해요. 북한은 늘 마음 졸이며 살았어요. 처음에 한국 와서 택배기사가 현관문 두드리는 것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북에서 경험한 검열, 감시의 트라우마예요. 지금은 자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박미정)

너무나 다른 체제 차이에서 오는 내부적인 갈등과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의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학교에서 학습, 배움터에서 학습, 일터와 일상에서 무형식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탈북자임을 인정하고 '북한에서 이주해 온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추어 나간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은 이들이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과정이며, 특히 성찰적 학습을 통해 자신 및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정체성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북한에 있을 때는 당연히 했던 일도 한국에서 똑같이 하면 인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과 의리를 아는 인간다운 자세도 지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한 작은 성공과 성취감이 쌓여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나를 돌이켜 보았던 것처럼 이런 계기가 많아 야지 고칠 수 있죠, 부끄러워야 고치는데 부끄러워 안하니까 못 고친다 말이죠. 하나원부터 많이 만들어 주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우리를 개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화)

남한에 입국할 때부터 나는 이제 대한민국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북에서 저는 늘 근심하고 얼굴에 독을 뿜었고 말에서는 화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교회를 통해 제가 360도 달라졌어요. (김다정)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선 나 자신이 변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배운 것 때문에 그걸 이겨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뒤의 성취감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교육이 없었으면 나 자신이 이렇게 변화했겠나 싶어요. (김다정)

나. 좋은 관계 맺기

그들은 남한과 북한의 의사소통 차이를 절감하며 그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말투로 인해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고, 자신들과 말하는 게 다른 남한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은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북한에서 습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말투와 비판을 해서 상처를 주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투, 칭찬하는 말, 배려하는 말, 동기 부여하는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적극적인 태도로 변해가고 있다.

다른 직원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다고 말해주었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고 해요. 상대방이 당황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런 게 순간순간 튀어나와서 고치는데 힘들었어요. (에스더)

같이 일했던 북한 사람들은 직원들과 잘 못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 왕따 당하고 빨리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오면 얼른 가서 함께 들어줬어요.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김다정)

그들은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웠지만 학습을 통해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타인이 해주는 비난과 비판을 인정하게도 되었고, 대인관계도 넓어졌다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통해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가 주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으며,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예절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도 없고 북한 출신이라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동네 엄마들, 애들 친구 엄마들하고도 잘 지내요.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 나를 맞춰가는 거 같아요. (김다정)

처음에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3년 일해 보니 아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서로 힘들었던 거지요. (에스더)

함께 하는 남한출신 봉사자들과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서로 카톡도 하고... 참 좋은 사람이 많구나, 좋은 인연을 또 만들었구나. (강희선)

다. 새로운 역할 찾기

그들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잃어버렸던, 부끄러워 초라하다고 느꼈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공부해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방식이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가가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결정해 가는 삶에 만족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새로운 역할도 찾을 수 있었다. 강희선은 군부대에서 안보교육 강사로 일하고, 김다정과 에스더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라는 원하던 직업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희열은 중국어 통역을 보람을 느끼며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도덕교육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사람과 소통하는 법, 공감하는 법을 배웠지요. 북에서는 수령과 당에 대한 얘기만 듣다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진짜 사람 사는 법에 대한 것을 배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는 사회고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좋은가를 고민해야 하는 게 좋아요. (박미정)

또한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 나가면서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북한사회를 돕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강희선은 이웃을 돕는 봉사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에스더는 북한이탈주민 도우미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김화는 통일을 목표로 통일교육 강사가 되기 위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연화는 북한선교를 위한 꿈을 꾸며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이희열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통일교육 연구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며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봉사의 삶을 통해 봉사가 내 삶의 원천이 되었어요. 봉사를 하면서 남한에 처음 와서 자살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가방 메고 봉사 나가서 씻겨주고 밥 해주고 하면서 힘을 얻지요. (강희선)

형식적인 도우미가 아니라 진짜 도우미가 되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에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답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픈데 병원이 필요한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에스더)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러려면 내가 더 바로 서야 도울 수 있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공부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는 후배들에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이희열)

2. 평생학습 참여 후 인식한 교육 요구

가. 빠른 정착과 취업을 위한 교육 요구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쉽게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외로움과 죄책감, 편견과 차별,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또한 이리다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기대와 다른 한국 사회에 좌절도 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런데 정착 와보니 북한사람을 범죄인이나 괴물을 보는 듯 했어요. 그런 시선과 차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목표와 대학을 다니면서 목표를 잡았어요. 먼저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는 것, 사회활동 하면서 한국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한국 정치와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 보는 것, 가끔은 봉사과 동아리 활동으로 친목모임에도 참여해서 남한 친구 만들기 등이 목표였어요. 또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단체나 모임에 참여한 동기는 정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희열)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깨달으며, 아르바이트가 아닌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30대라는 늦은 나이지만 대학에도 가고, 대학원에도 진학한다고 한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그들은 영어와 대학 졸업장이라는 스펙이 없으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한다. 대학졸업장과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쉽게 얻지 못하기도 하면서 식당종업원으로 노동자로, 마트 등에서 일하며 학위를 얻기 위한 교육과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습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 남한에 와서는 6개월 간 식당에서 서빙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 식당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과제빵 교육 참가 면접이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가자고 해서 면접을 보고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교육에 25명의 탈북민이 참여했는데 끝까지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은 5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저는 취업이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증 수당이나 기초수급 연장이 목적이었어요. (에스더)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혼자 월급 가지고 자식도 키우고 자신도 살아야 하니까 어렵지

요. 공부하는 것은 무섭지 않으니깐 공부해서 더 나은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공부해서 사무직이나 급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박미정)

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의 필요성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12주간 초기적응교육을 받았고 최근 입국자들은 하나원 심화교육과 지역하나센터에서 보수, 심화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2주라는 긴 시간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하나원 교육에 대해 참여자 모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강사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교육과정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교육 내용과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막상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나만 비정상인줄 알았지만 교육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어요. 사회에 나와서 뭐하고 살 건지를 고민하다 보니 교육에 집중이 전혀 안되죠. 실제 나와서 부딪쳐보니 머리에 쑥쑥 들어와요. 자꾸 부딪쳐 보는 게 중요해요. 병원은 이렇게 가는구나, 동사무소는 이렇게 가는 구나를 현실에서 경험해봐야지. 폐쇄된 공간에서 12주간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가뉘놓고,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지... (강희선)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배워주는 하나하나를 들었지만 사회에 나와서 써먹으려고 하니깐 이 사회 현실하고 다른 것을 배워주었어요. 하나원에서 배워준 거 현실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연화)

하나원 교육 중 심리·정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이었으며 극도의 불안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신들에게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원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들의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며, 마음을 열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 사회에서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어떤 것에 공감했느냐면 ‘자기마음 알아가기’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겠다는 이런 자기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울면서... 가슴 아팠던 과거 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끝낸다 말이죠. (김화)

교육이 왜 빨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자립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어야 해요. 자존심,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에스터)

그들은 하나원 교육 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받은 자발적인 학습이 그들이 사회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얻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각 종 배움터에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학습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 하는 공동체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대학원은 취업을 위해서 입학했고, 여성발전센터를 알게 되어 풍선아트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거나 교회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 자격증을 따서 방과 후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김다정)

교회에서 '복한 선교'를 배우는데 나눔, 봉사, 이웃사랑에 대해 배워요. 저는 일을 할 때는 몸을 사리지 않아요. 내가 조금 힘들면 어때요, 일하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들을 존경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죠. 저는 이런 걸 교회에서 배웠어요. (김다정)

그들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일에서 얻은 보람이 학습을 재충전시켜 주며, 일에서 힘을 얻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상사, 동료들에게 배우기도 한다.

각종 박람회를 주로 다니며 통역하다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각종 무역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서 좋았고 나가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태양열, 하이테크) 전혀 몰랐는데 미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 한 거 예요. 통역하며 나 자신이 재충전이 되었어요. (이희열)

북에서는 농장일, 중국에서는 떡 장사, 남한에서 식당 서빙과 제빵사로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니 얼마나 일하기가 어려웠겠나... 자원봉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업무를 통해서 상사, 동료들에게 배우면서 모르는 것은 혼자 학습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어요. (에스터)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그들은 실생활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며 배우는 학습이 중요하다고 한다. 삶에 가까이 가는 학습이 필요하고 더 유익하며, 교육장에서 배우는 이론 교육보다 삶의 경험과 체험 학습이 더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직업교육이 기술이나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받은 교육 보다는 실생활에서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데 하나원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차라리 버룩시장을 찾아

바라, 인터넷에서 인쿠르트, 사람인, 알바몬 등을 검색해바라, 직업소개소가 있으니 가봐라. 캡처해서 실물을 보여주면서 교육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이런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생활하다가 스스로 터득해서 알게 되어 힘들었어요. (김다정)

주민등록증을 주기 전에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놔야지 그러지 않고 탈북민을 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사회에 나와서 탈북민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사람이 참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어요. (김화)

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

그들은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며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직장이나 교회, 북한이탈주민 단체, 배움터 등에서 만난 롤 모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멘토를 통해 생활 전반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학습과 진로선택, 직장에서 멘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치유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어 나가고 있었다. 자신보다 먼저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 선배를 롤 모델로 그들의 자세와 태도 등을 배워 나가고 있었으며, 선배들에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함께 해 나가고 있었다. 강희선은 아픈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 준 봉사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서울에 거주지 배정 받고 집에 오자마자 열이 오르며 죽을 것처럼 아파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어요. 병원을 가다 길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119불러줘서 병원으로 실려 갔지요. 적십자 봉사단 대표가 속옷 세벌을 사와서 몸을 다 닦아주고 속옷을 벗으라고 빨아다 주겠다고 하는 말에 엄마에게서도 못 느꼈던 사랑을 느끼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거기서 나도 이 분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고 느꼈어요. 퇴원 후 그 분을 따라서 봉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강희선)

또한 이희열은 인권유린을 극복하고 인권운동가로 성장한 흑인여성을 보며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자각하고, 북한이탈주민 단체 활동가의 헌신적인 돌봄을 보며 그들의 사고방식, 태도를 관찰하고 따라 배운다고 한다.

활동가 선생님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 사람의 능력, 매력을 보면서 나도 탈북민이지만 탈북민 다루는 게 참 힘든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 능력을 보면서 교제 이외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희열)

볼티모어 성폭력상담소 방문 시 잠비아에서 온 흑인여성의 사례를 들었는데, 인신매매로 미국에 팔려왔는데 본인은 모르고 돈도 안주고 일시키고 성폭력도 당하고 그래서 고소를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공부해서 교육자로 나섰다는 그녀를 보며 그 모습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저런 일인가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큰 충격이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자각시킨 경험이었어요. (이희열)

에스더는 직장에서 만난 상사를 통해, 교회에서 만난 선배를 통해, 교육 강사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배워 나가고 있다. 그녀는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한국 사회 정착에서부터 인간의 태도와 사고방식, 학습, 직업, 진로, 자녀 양육 등 삶 전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처음에 교회 집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엄마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 좀 천천히 하고, 상대방이 말 다 끝난 다음에 말하고, 치마입고 다리 벌려서 앉지 말고, 네 행동이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오해를 안 받게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보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 하더라 구요. 이것이 내가 좋은 인성과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집사님이 저의 영적인 어머니고 멘토셨어요. (에스더)

지금은 직장 팀장님이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물으면 알려주세요. 그분은 제게 진짜 멘토세요. (에스더)

그들은 직장, 교회, 배움터,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 배움터에서 만난 학습자를 통해 외로움을 치유받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 통해 인간관계를 깨달아 가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종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을 통해 삶의 여러 문제를 알아가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보며 삶의 잣대를 자각해 나간다고 한다.

사람의 모습은 겉과 안이 다 아름다워야 하는데 나를 김정일이 잘못 만들어 놔대요. 그 버릇을 안 고치면 한국에서 내가 팔자를 못 고친대요. 나의 정통을 찢렸구나, 내 심금이 깊이 와 닿았다 말이죠. 나를 돌이켜 보게 되었어요. 부끄러우니 고치게 되요. (김화)

NGO에서 내가 모르던 북한에 대해서도 배웠고,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못 느꼈던 감정들... 저는 무슨 교육이든 많이 받자 주의예요. 학교 밖에서의 교육이 더 큰 영감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장점을 보면서 저건 받아들여야겠구나. (이희열)

V. 논의와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의 변화와 성과를 얻었다고 인식하는지, 평생학습 참여 후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게 된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평생학습 후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한 삶의 변화와 성과는 북한에서 이주해 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가며 삶의 활력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둘째, 평생학습 참여 후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한 교육 요구는 한국 사회 정착과 취업을 위한 교육 요구,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의 필요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학습참여를 통해 학습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체제인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와 자신감 회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학습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자기성찰의 과정이었다. 그들에게 탈북과 한국으로의 이주는 삶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단절성과 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생애 경험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들이 정착 초기에 경험하는 학습은 관점전환학습의 성격(조정아, 2010)을 띠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한 학습은 그들이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새로운 사회에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 참여 후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 정착과 취업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등에서 받은 의무학습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습이 그들의 정착과정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나원 교육에 대하여 참여자 모두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빨리 사회에 나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며 받는 교육이 더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립과 취업을 위해서는 ‘인성’의 회복을 통한 자존감 향상과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탈북성인 기초직업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박상욱 외, 2010)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문학 교육이 자기 삶에 대한 성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과의 소통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 직업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마음치유와 인성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성찰 학습, 심리치유 학습, 코칭 교육, 영성 교육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배움터에서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 더 많은 자기성찰과 변화를 얻어나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하

나센터 등의 교실을 벗어나 직장,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부딪히고, 함께 참여하는 현장교육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캐나다 교육 사례 연구에서 김진희(2014)는 캐나다 신규 정착 이주민 지원정책이 현장밀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 체험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고 그들 삶의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었다. 직장이나 종교단체,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배움터 등에서 만난 롤 모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 나가고 있었다. 멘토를 통해 생활 전반 및 업무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학습과 진로선택, 직장에서의 적응을 위해 멘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가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성찰과 관점전환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 공간으로 의미가 있음을 밝혀 준다. 또한 새로운 체제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에게 롤 모델과 멘토를 통한 관찰과 모방 학습이 그들을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0)은 해외 난민사례 연구를 통해 구직 관련 기관 담당자와 북한이탈주민과의 체계적인 멘토식 지원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에 나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학습과 진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선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출신 멘토링 시스템과 상담제도, 그리고 정착 성공 사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삶의 과정을 거친 난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학습 욕구를 가진다(Haileluel, 2008). 전혀 다른 사회체제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을 요구한다. 그들의 학습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평생교육이 가져야 할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동화와 사회통합의 대상이나 보호와 복지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우리사회 평생교육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주체로 인식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평생교육이 삶의 전환과정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과 제3국가에서 학습과 생활의 연장선 속에서 생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단기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생애체험과 학습경험에 기초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경력을 고려하는 직업훈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호주사회 국제난민을 위한 교육 연구에서 김진희(2012)는 매년 30개국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는 호주사회가 중앙 및 지방정부,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난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교육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획이 학습자 요구

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장하고 잠재적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넓히는데 평생교육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해외 난민 지원교육에 대한 사례국가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육이 난민의 사회 적응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이러한 해외사례를 통해 현재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북한이탈주민 요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학습 참여 후 인식한 성과와 교육요구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원 교육의 성과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하나원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와 단순한 선호도, 필요도만을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 설문지 등 종합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교육요구 및 요구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학습자 중심으로 개선에 대한 요구 및 연구의 결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사회, 중국 및 제 3국 체류,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종적 생애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고 그들의 교육 요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적합한 생애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이루는 평생교육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인문학을 통한 성찰, 종교적 성찰,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학습 등이 북한이탈주민 시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이주민을 위한 시민교육사례, 우리나라 성인들의 시민교육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효과를 고찰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학력, 중국 등 제3국에서의 경험과 체류 기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한국에서의 학습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생애별, 개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대봉 (1999).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 기영화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서울: 학지사.
- 김도태 (2011).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 내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29(3), 51-68.
- 김영미, 한상훈 (2012). 성인학습자의 자아개념, 참여동기 및 학습참여도와 평생학습성과의 구조적 분석. **교육연구논총**, 33(2), 123-143.
- 김영하 (2008). 새터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21세기정치학회보**, 18(2), 255-284.
- 김진화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희 (2012). 호주사회의 국제난민을 둘러싼 다문화담론과 난민 이주민을 위한 교육. **Andragogy Today**, 15(3), 209-237.
- 김진희 (2014). 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캐나다의 교육 사례와 평생교육에의 시사점. **Andragogy Today**, 17(3), 45-65.
- 김현아 (2010). 새터민의 남한 사이버 교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2), 57-92.
- 노경란 (2008). 입국 초기 새터민의 취업지원 교육요구 진단과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4(2), 61-83.
- 노경란, 전연숙 (2009).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대상 단기 진로개발교육 효과 연구. **통일정책연구**, 18(1), 245-277.
- 노희숙 (2012).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을 통한 의미관점 전환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욱, 이해영, 조정아, 이요행, 최늘샘 (2010). **탈북성인 기초직업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인문학 교육적 접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상욱, 최늘샘 (2011).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요구: 인문학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Andragogy Today**, 14(2), 107-135.
- 박상욱 (2014). 인문학 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 치유와 자립의 과정. **Andragogy Today**, 17(1), 143-179.
- 박성정, 오은진 (2012).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개선 과제. **직업교육연구**, 31(4), 135-15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2010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해외 난민 지원 사례와 북한이탈주민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부.
- 신두철 (2011).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24(1), 97-113.
- 신미식 (2011). 새터민의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역할. **서석사회과학논총**, 4(2), 79-107.
- 신수진, 조대연 (2014). 기업과 지역사회의 성인 대상 교육훈련 요구분석 연구동향: 2006-2014년 발표된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0(3), 79-96.
- 유병선 (2012).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1), 87-100.
- 이덕정 (2011). **북한이탈 중년여성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평생학습 경험**.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진, 유기웅 (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27(3), 27-52.
- 이지경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1), 101-132.
- 이희정 (2011).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67-108.
- 정민승, 최운실 (2007).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습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3(3), 169-186.
-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2(2), 215-248.
- 정진화, 손상희, 이주관 (201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 **통일정책연구**, 22(1), 267-296.
- 조동운, 김용태 (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2), 25-50.
- 조대연 (2006). 국내 성인교육훈련의 요구분석 연구동향: 1990년-2005년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9(1), 85-106.
- 조용환 (2008).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인목, 기영화 (2015).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9(1), 271-293.
- 조정아 (2010). 탈북이주민의 학습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통일정책연구**, 19(2), 175-211.
- 최운실 (200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HRD자본, 사회문화적 자본, 개인적 자본 측면의 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4(3), 381-419.
- 최운실, 이지혜, 정민승 (2005). **평생교육 참여성과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진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21, 107-124.
- 통일부 (2015).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현황. 서울: 통일부.

평생교육진흥원 (2010). 2010 평생교육백서.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하영수 (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1), 125-143.

Haileluel, G. S. (2008). *Integration strategies of migrants and refugees*. Canberra: The Winston Churchill Trust.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Schuller, T., Brassett-Grundy, A., Green, A., Hammond, C., & Preston, J. (2002). Benefits of lifelong education: Final summary report. London: Centre for Research on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